

고전문학 연구의 토대 마련한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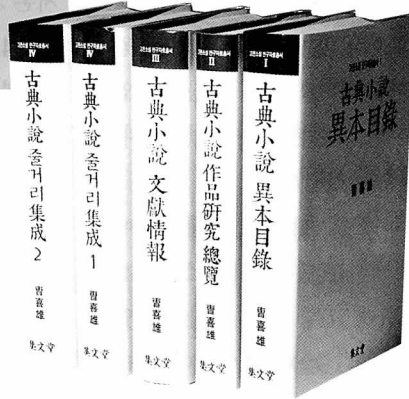
〈고전소설 연구자료총서(전5권)〉 완간돼

고전소설을 총정리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꼬박 10년을 공들인 끝에 완성됐다. 조희웅 교수(국민대)가 펴낸 〈고전소설 연구자료총서(전5권)〉(집문당)는 지난 1천여년간의 고전소설 관계 자료를 망라하고, 최근 1백년간의 우리 고전소설 연구성과들도 모두 모았다. 1999년 제1권 《고전소설 이본(異本)목록》을 출간한 이래, 2002년 4월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전2권)》을 끝으로 장정을 마무리했다. 우리 고전소설 연구는 1900년 창강(滄江)이 《연암집》에 붙인 〈호질문발(虎叱文拔)〉을 기준 삼으면 어느새 1백년 세월을 쌓게 된다. 따라서 고전소설은 자료로는 1천여년 역사를, 연구로는 1백년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지은이는 총서 발간의 가장 큰 목적을 자료정리에 뒀다. 총서와 총람의 부재로 연구자들이 저마다 품을 팔아야 했던 수고로운 자료정리를 아예 도맡은 것이다. 이 총서에는 이미 학계에서 논의된 고전소설류 858종과 상당수의 미연구 작품목록이 담겼다. 미연구 작품은 망실된

것, 소장처를 알 수 없는 것 등이 대부분이다.

〈고전소설 연구자료총서〉는 소설사료 논저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가진·가사체 소설작품, 서사적 수필 작품도 포함했다. 《고전소설 이본목록》은 〈가수재전(賈秀才傳)〉을 필두로 《흥선대원군실기(興宣大院君實記)》까지 모두 858편의 출전과 소장자, 서지사항을 밝혔다. 부록은 간지표(干支表), 월명 이칭 일람(月名異稱一覽) 등이다. 《고전소설 작품연구 총람》은 제목 뜻, 지은이, 출전을 정리하고 '비교연구' 항목을 뒤 기왕의 연구성과도 소개한다. 부록으로 작가록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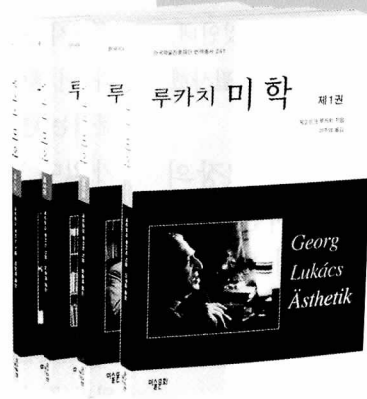
조희웅 지음
집문당/B5변형/900면 내외/50,000원 내외

《고전소설 문헌정보》는 각 작품의 작가, 출전을 기본으로 관계기록, 영인·역주·활자 자료와 연구 성과가 게재된 학술지 정보까지 꼼꼼하게 실었다. 부록은 표제 총목록이다. 《고전소설 줄거리 집성(전2권)》은 각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한다. 또 각 작품을 발굴하고 정리한 연구자와 게재 학술지까지 빠트리지 않았다. 부록으로 건원(建元) 대조표와 한중일 연호(年號) 일람표를 실었다. —차정신기자

게오르크 루카치의 《루카치 미학》(미술문화)이 전4권으로 완간됐다. 지난 2000년에 1·2권이 첫선을 보였고 나머지 3·4권이 나왔다. 원저는 초판이 1962년 《미적인 것의 고유한 특징》이란 제목으로 독일에서 출판됐고, 1972년 《미학》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축약본을 번역대본으로 삼았다. 《역사와 계급의식》《소설의 이론》 등 루카치의 저작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개된 바 있지만, 만년의 대표작인 《루카치 미학》은 국내 초역이다.

루카치는 원래 《미학》을 3부작으로 구상했지만 1부만 완성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1부에서는 미적 영역의 철학적·인식론적 근거를 정립하고자 했고, 2부에서는 예술작품의 구체적 구조와 예술활동의 창조적 수용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사회적·역사적 발전으로서의 예술》이란 제목으로 예술의 역사를 고찰하려 했다. 이 책은 결국 미완성 저작이긴 하지만, 루카치 미학사상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미적 활동의 방식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이로부터 미학의 특수한 범주를 이끌어내어 인간의 다른 활동영역들과 경계를 구분짓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상생활에 주목해 미학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루카치는 진정한 미적 체험은 일상생활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인문적 삶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본다.



게오르크 루카치 지음 | 이주영 외 옮김
미술문화/A5신/328면 내외/12,000원 내외

곡한다는 것이다.

루카치 미학은 예술의 해방적 성격으로 귀결된다. 루카치는 예술의 카타르시스적 특징에 주목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루카치는 카타르시스를 현실적 갈등의 산물인 내면의 걱정을 인문적 지향성으로 승화시키는 능동적 고양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이런 카타르시스를 통해 예술작품 수용자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일상적 실천에 작용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강조한다. —박천홍기자

마르크스주의 미학 이론의 한 정점

《루카치 미학(전4권)》 완간돼

루카치는 이 책에서 철학적 관념론과 이론적 전투를 수행한다. 아리스토텔레스·헤겔·괴테 등으로 대표되는 모든 관념론 미학은 필연적으로 위계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관념론에서 의식형태들은 사유의 질서에서 최고의 심판관으로 격상될 수밖에 없고 그런 위계질서는 본질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모든 대상과 관계들을 왜곡한다는 것이다.